



## 진해구 웅동2동 풍물패, '제55회 군항제 주민참여프로그램' 우승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기자)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풍물패.(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권순욱 주민자치위원장은 10일 '제55회 진해군항제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웅동2동 풍물패가 참가해 동부지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제55회 진해군항제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진해구 동주민센터 풍물패 13개팀이 참가, 열띤 경쟁을 펼쳤다.

웅동2동 풍물패(회장 윤인숙)는 상춘객들과 함께 흥겨운 풍물 장단을 펼쳐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며, 군항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시민영원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55회 진해군항제'의 백미인 '이충무공 승전행차' 퍼포먼스에 우승자격으로 참가, 웅동2동의 풍물패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